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jnam@kdi.re.kr

I. 머리말

2025년 북한경제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공식경제 성장, 대외 교역의 외형적 회복과 내부 시장의 초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기이한 모순에 직면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러 협력에 힘입어 공식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대중 무역이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 시장 지표들은 오히려 2009년 실패한 화폐개혁 이후 최대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시장환율은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하여 북한원 가치가 붕괴 수준에 이르렀고, 쌀과 정제유 등 필수재 가격은 주민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1달러당 40,000원을 넘나들었으며, 쌀 가격은 1kg당 2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8,000원/달러, 쌀 1kg당 5,000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시절과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이다. 물론 2024년에도 북한원의 평가절하 및 상품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으나, 2025년 들어 더욱더 심화되어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24년에는 크게 상승한 환율에 비해 상품가격의 인상률이 높지 않았으나, 2025년 들어서는 상품가격 또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대외 무역의 정상화가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가정이 현재의 북한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 시장을 강타한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의 동향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고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닌,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와 시장 구조의 왜곡이 만들어 낸 복합적인 결과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2025년 북한 시장 지표의 변화는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외화 공급의 ‘구조적 경직성(structural rigidity)’ 심화다.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으로 일원화되고 민간의 외화 획득 경로가 차단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에 외화가 공급되지 않는 ‘낙수 효과의 실종’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라는 지정학적 호재가 민수 경제와는 철저히 괴리된 ‘경제 분절(segmentation)’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둘째, 곡물 가격의 ‘비동조화(decoupling)’와 양극화다. 환율 급등이 화폐적 자산 성격이 강한 쌀 가격의 폭등(overshooting)으로 이어진 반면, 열등재인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층별 소비 패턴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에너지 가격의 ‘수렴(convergence)’과 공식경제 수요의 부상이다. 전통적으로 저렴했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육박하는 현상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국가 주도의 건설 및 군사 활동에 따른 경유 수요의 상대적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북한 시장환율의 급등 추세와 그 원인인 공급 충격 및 정책 리스크를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쌀·옥수수 등 곡물 가격과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 가격의 동향을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2025년 북한경제가 보여준 ‘고환율-고물가’ 체제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통제 경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균형(new normal)으로의 진입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Ⅱ. 2025년 북한 시장환율 동향 및 특징

1. 북한 시장환율 추세

2025년 북한 시장환율은 기록적인 급등세로 정의할 수 있다. 조사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월 평균 22,000원/달러 수준이던 환율은 12월 평균 39,000원/달러까지 치솟았다. 위안화 역시 1월 3,000원/위안에서 12월 5,300원까지 상승했다. 시장 환율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4~19년(이하 안정기) 당시 1달러가 8,000원대 초반, 1위안이 1,000원대

초반에 거래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2025년 말 기준 북한 원화의 가치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절하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 시장의 달러 및 위안화 연평균 환율 추이를 보여준다. 국경봉쇄가 해제되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듯 보였던 2023년의 경우, 환율은 안정기(2014~19년) 평균인 8,153원/달러, 1,239원/위안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¹⁾ 그러나 2024년 환율이 전년 대비 약 1.5배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하며 상승 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그림 1]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1~5월)까지는 다소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6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분기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추세를 고려할 때 언제든지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이다.

이번 환율 급등기에 나타난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달러와 위안화 환율의 동조화(coupling)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²⁾ [그림 1]과 [그림 2] (a)에서 확인되듯, 2024년 초반에는 위안화가 선제적으로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달러가 더 크게 오르면서 두 통화 간의 상대가격(교차환율) 변동성이 컸다. 반면, 2025년에는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거의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상승했다. 실제로 2024년 0.87에 그쳤던 달러-위안 환율 간 상관계수는 2025년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북한 시장 연평균 달러 및 위안 환율(2023~25년)

(단위: 북한원)

	달러		위안	
	DailyNK	AsiaPress	DailyNK	AsiaPress
2023년	8,332 (14.1%)	8,325 (15.3%)	1,236 (42.0%)	1,223 (43.3%)
2024년	13,120 (57.5%)	13,709 (64.7%)	1,874 (51.5%)	1,982 (62.1%)
2025년	28,966 (120.8%)	28,355 (106.8%)	3,943 (110.5%)	3,836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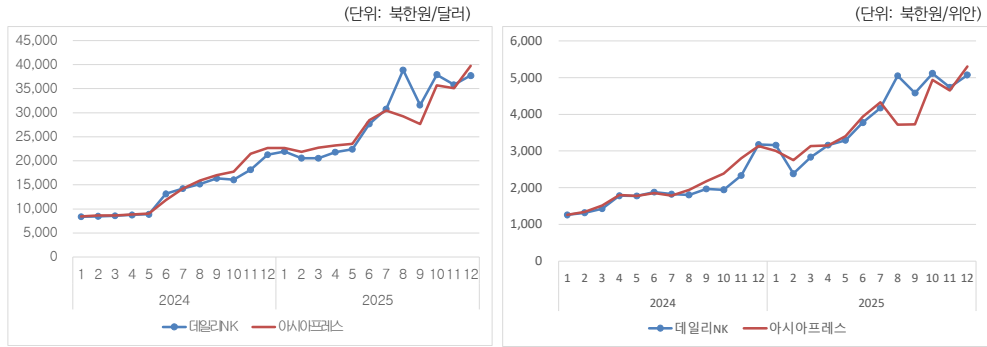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DailyNK, AsiaPress.

- 2023년 환율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높았던 것은 2022년 환율이 국경봉쇄로 인해 외화 수요가 낮아져 하락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급감으로 위안 수요가 달러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감소했었기 때문에 2023년 위안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외환거래에서 환율 불균형이 생기면 환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외환거래가 쉽지 않은 북한 시장에서는 시장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19년에는 북한 시장환율을 통해 환산한 달러/위안 상대가격이 국제시장 달러/위안 상대가격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인 바 있다.

[그림 1] 북한 시장 월평균 달러 및 위안 환율(2024. 1~2025. 12)

(a) 달러 환율

(b) 위안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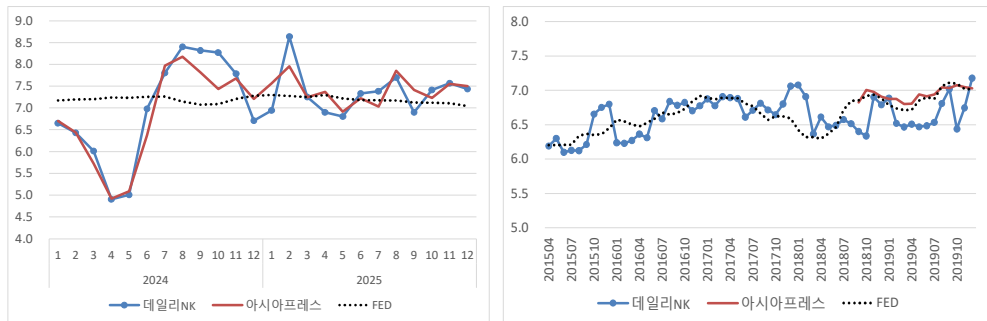
자료: DailyNK, AsiaPress.

또한 북한 시장 내 위안/달러 상대가격과 국제 금융시장(미국 Fed 기준) 가격 간의 괴리율 (spread)도 축소되었다. 2024년에는 월평균 14.7%의 격차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5.5%로 줄어들며 안정기 평균인 3.1%에 근접했다(그림 2(b) 참조). 이는 2025년의 환율 상승이 특정 외화(달러 혹은 위안)의 대외적 가치 변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 원화 자체의 구조적 가치 폭락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³⁾

[그림 2] 월별 위안/달러 상대가격 추이

(a) 2024~25년

(b) 2015~19년



주: DailyNK의 북한 시장 위안 자료는 2015년 4월부터 있어 (b)에서 시계열 시작점은 2015년 4월이며, AsiaPress의 경우 달러 자료가 2018년 9월부터 제공됨.

자료: DailyNK, AsiaPress, 미국 Fed.

³⁾ 예를 들어 2021~22년의 경우 국경봉쇄로 북중무역이 크게 줄어들어 북한 내에서 위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즉, 북한 주민이 가치 저장 혹은 부의 축적 목적으로 달러를 선호하는 반면, 위안의 경우 주로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2025년 시장환율 급등의 원인 분석

2025년 북한 시장환율의 기록적인 급등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정보의 제한성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북한 시장 내 외화 공급의 구조적 경직성(structural rigidity)'이다. 즉, 외화 공급 충격(supply shock)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급곡선의 비탄력성(inelasticity)이 심화되어, 수요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환율)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가. 대외무역 정상화의 한계와 유동성 경색

첫 번째 원인은 대외무역의 양적 회복이 시장 내 외화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낙수 효과의 차단'이다. 2025년 북중 교역 규모는 통계상 2020년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나,⁴⁾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원화(중앙집권식 무역제도⁵⁾)되면서 민간 시장으로의 외화 유입 경로가 봉쇄되었다. 과거 '돈주' 중심의 위탁무역이나 보따리상이 창출하던 외화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탈북민 송금 등 국경 지역의 '모세혈관형' 외화 공급망마저 지속적인 통제로 위축되면서, 무역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은 만성적인 외화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나. 북러 경제협력의 '분절 효과(segmentation effect)'

두 번째 요인은 북러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북한 시장과는 격리된 채 나타나는 '경제 분절' 현상이다. 한국은행(2025)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 성장은 2023년 3.1%, 2024년 3.7%에 달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무려 8.1%와 10.7% 증가했다. 북러 밀착 효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북한 산업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규철·남진욱(2025, 근간 예정) 또한 북러 밀착이 북한의 중화학공업 및 군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제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군수 물자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설사 외화 형태로 '대금'을 받았더라도 북한 시장에 흘러 들어갔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금이 아닌 식량, 에너지 등 현물

4) 북한의 2025년 대외무역 평가에 대해서는 최장호(2026)를 참고하라.

5) 『VOA』, 「'북한 '중앙집권식 무역제도' 부활... '계획경제' 실패 입증」, 2022. 2. 10.

형태나 군사 기술 등을 대가로 받았을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 대가를 받았든 북한 시장 외화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 통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과 ‘역(逆) 그레섬의 법칙’

세 번째 설명 요인으로 북한 당국이 이어 나가고 있는 외화 사용 억제·단속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과 기대 심리(expectation)의 붕괴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외화 거래 단속 관련 보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⁶⁾ 이러한 단속은 단순히 거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왜곡시켜 환율을 폭등시킬 수 있다. 즉,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거래(위험)비용 상승이 환전상들로 하여금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북한원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달러나 위안: 양화)를 더욱 깊숙이 숨겨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북한원: 약화)만 시장에 남는,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섬 법칙(Gresham’s Law)이 역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결국 단속할수록 시장에 도는 외화는 씨가 마르고, 희소성이 커진 외화의 가치는 더욱 오르는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요인은 북한 시장의 외화 공급곡선을 수직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다. 하지만 2025년 북한 시장에서는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구조적(무역 독점)·물리적(단속) 제약 때문에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외화의 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공급이 거의 고정적인 상태에서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가 발생하자, 환율이 균형 가격을 넘어 폭등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외화 공급 부족 요인 외에도 북한의 외화 수요 상승 및 재정 지출 등 수요 측면의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중무역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8.3억달러를 수입했는데, 2025년에는 약 22.9억달러를 수입하며 전년도에 비해 약 4.6억달러 증가했다. 대중 수출액이 2025년 4.4억달러로 전년 대비 1억달러 가까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수입액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해 대중 무역적자도 2024년 14.9억달러에서 2025년 18.5억달러로 늘어났다. 무역적자는 외화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 압력을 넣게 된다. 실제로 “9월부터 중국과

6) 『RFA』, 「[북한 통신] 외화 단속에 송금도 ‘북한 돈’으로」, 2024. 9. 20; 『RFA』, 「북, 불법 ‘돈 작업’ 업자 단속 강화」, 2025. 3. 25; 『DailyNK』, 「북한 환율 쇼크 개인 환전 단속 강화하자 외환거래 더 ‘음지화」」, 2024. 12. 16; 『DailyNK』, 「北, 무역일꾼들의 외화 현금 반출입 금지…통제 고삐 ‘바짝」」, 2025. 11. 11; 『DailyNK』, 「돈데고 ‘소탕전’이 부른 역효과… 달러·위안 거래 더 값은 음지로」, 2025. 12. 23.

무역이 활발해져, 수입 대금을 지불하려고 무역회사가 앞다투어 외화를 사 모으고 있어 쪽쪽 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다.⁷⁾

게다가 2023~24년에 이뤄진 국정임금 상승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화폐증발이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현금(북한원)이 풀린 것이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즉, 북한원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원산갈매해안관광지구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재와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에 과부하가 걸렸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통화를 남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당국이 시장환율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기에 북한 시장환율 급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황상 최근 북한 당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나 대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 시장에서 외화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데, 수요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환율은 상승세를 떨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초인플레이션의 주범 중 하나인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5년 가을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듯, 상점이나 식당에서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모바일 전자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⁸⁾ 실제로 ‘삼흥전자지갑’ 가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될 정도다.⁹⁾ 이는 주민들이 보유한 현금을 은행 시스템(전산망) 안으로 끌어들여 통화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출금을 제한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화폐 자원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북한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북한원 가치가 단기간에 회복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AsiaPress』, 「<북한내부>북한 원이 갑자기 30~40% 대폭락 “달러와 위안의 급등은 외화 고갈 탓” 백미가 지난주 대비 2배 넘는 등 식량과 유가도 폭등」, 2025. 10. 24.

8) 변상정(2025).

9) 『연합뉴스』, 「북한 “전자지갑 가입자 수백만명”...전자결제 확산 선전」, 2025. 11. 2.

III. 2025년 북한 시장물가 동향 및 특징

1. 북한 시장 곡물 가격

가. 곡물 가격 추세

2025년 북한 시장물가는 환율 급등과 궤를 같이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사 가능한 품목의 제한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 생활의 척도인 쌀 가격 추이를 통해 이러한 물가 불안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표 2, 그림 3(a)).

<표 2> 북한 시장 연평균 곡물 가격(2023~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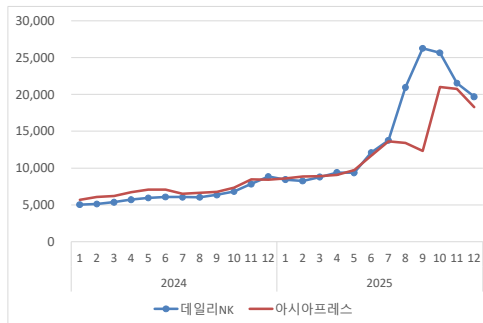
	쌀		옥수수	
	DailyNK	AsiaPress	DailyNK	AsiaPress
2023년	5,595 (0.5%)	5,867 (1.5%)	2,792 (-0.3%)	2,920 (3.7%)
2024년	6,273 (12.1%)	6,920 (18.0%)	3,085 (10.5%)	3,331 (14.1%)
2025년	15,361 (144.9%)	13,023 (88.2%)	4,475 (45.1%)	3,699 (11.0%)

(단위: 북한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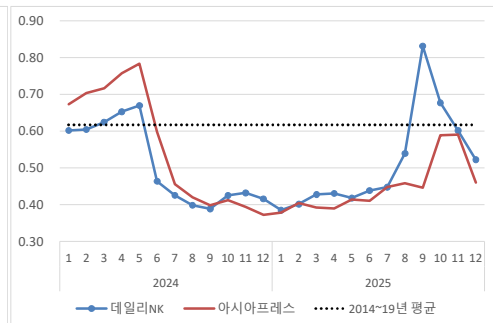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DailyNK, AsiaPress.

[그림 3] 북한 시장 월별 쌀 가격 추이

(a) 북한원/kg



(b) 달러/kg



주: 달러 표기 가격은 북한 시장환율을 활용하여 산출했음.
자료: DailyNK, AsiaPress.

DailyNK 조사 기준, 2025년 1월 kg당 평균 8,450원이던 쌀 가격은 9월 들어 월평균 26,267원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후, 12월에는 20,000원 미만으로 다소 하락하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4년 1월 평균 가격(5,043원)이나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2014~19년 평균 가격(약 5,000원) 대비 최고 5배 이상 폭등한 수치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을 강타했음을 시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율 상승과 쌀 가격 상승 간의 시차와 변동성이다. [그림 3] (b)는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달러 환산 쌀 가격'의 추이를 보여준다. 통상 북한 시장에서 1달러는 약 8,000원, 쌀 1kg은 약 5,000원 수준에서 거래되어, 0.62달러/kg가 일종의 '균형 가격'으로 인식되어 왔다(2014~19년 평균).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가격 흐름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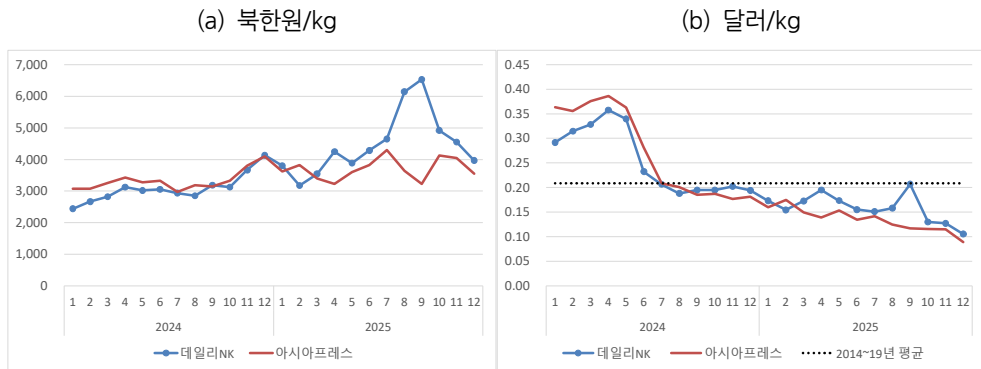
먼저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비해 쌀 가격의 반영 속도가 늦어, 달러 환산 쌀 가격이 0.40달러/kg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실물 가격이 따라잡지 못한 구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쌀 가격이 환율 상승분을 상회하는 폭으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9월 달러 환산 쌀 가격은 균형 가격을 훨씬 웃도는 0.80달러/kg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환율 요인을 넘어, 공급 부족 등 실물 부문의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25년 4분기 들어 환율은 고환율 상태를 유지한 반면, 쌀 가격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12월 기준 달러 환산 가격은 0.52달러/kg 수준으로 하락했다. AsiaPress 조사 결과 역시 변동폭의 차이는 있으나, 2025년 쌀 가격이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DailyNK 데이터와 일치된 흐름을 보인다.

반면, 쌀의 주요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2025년 1월과 12월 가격 차이가 미미할 정도로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인 정체 흐름을 보였다. 물론 [그림 4]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ilyNK 기준 2025년 하반기 옥수수 가격이 일시적으로 6,000원/kg을 돌파하며 연평균 가격이 상승하긴 했으나, 환율이나 쌀 가격 상승세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옥수수의 달러 환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을 [그림 4] (b)를 통해 알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옥수수의 달러 환산 가격은 안정기(2014~19년) 평균 가격인 0.21달러/kg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실질 가치 측면에서 옥수수의 저평가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쌀 가격의 폭등과 옥수수 가격의 상대적 안정은 쌀/옥수수 상대가격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졌다. [그림 5]와 같이 2024년 2배 수준이던 상대가격은 2025년 4분기 들어 5배 수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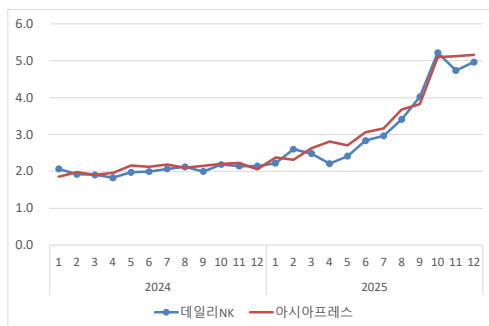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장에서 옥수수는 쌀에 비해 열등재(inferior good)로 간주되어 주민 소득이 증가할 때 쌀 수요가 늘며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북한에서 쌀/옥수수 상대가격이 5배를 넘긴 것은 2014년과 2016년 이후 처음인데, 이 시기는 북한이 북중무역 호황과 시장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았다고 평가받는 시기다. 그러나 2025년의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민의 실질소득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소득 효과보다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의 ‘소득 증가=상대가격 상승’ 공식이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북한 시장 월별 옥수수 가격 추이



주: 달러 표기 가격은 북한 시장환율을 활용하여 산출했음.
자료: DailyNK, AsiaPress.

[그림 5] 북한 시장 쌀/옥수수 상대가격



자료: DailyNK, AsiaPress.

나. 곡물 가격 상승 원인

2025년 쌀 가격은 폭등한 반면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한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은 공급 측면에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 시장 공급 측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쌀과 옥수수 가격 괴리는 단순한 생산량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표 3〉은 주요 기관(농촌진흥청, FAO, USDA)의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와 대중 수입량을 보여준다.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2024~25년 쌀 생산량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 또는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대중 곡물 수입량 역시 무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023년에만 반짝 증가한 후 2024~25년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전체 공급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제학적 원론에 따르면 공급이 증가한 쌀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정체된 옥수수 가격은 상승해야 마땅하다. 현장에서 곡물 수확이 양호했고 분배도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⁰⁾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쌀 가격 폭등, 옥수수 가격 상대적 안정)이 관찰되었다. 이는 곡물 가격 결정 기제가 공급 요인보다는 유통 구조 및 수요 측면의 왜곡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량 데이터와 상반되는 가격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환율 충격의 비대칭적 전가(asymmetric pass-through)다. 시장환율 급등이라는 거시적 충격이 개별 상품 가격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차와 강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환금성이 높고 화폐 대응 성격이 강한 쌀에는 환율 상승분이 즉각적이고 과도하게

〈표 3〉 2023~25년 북한의 쌀, 옥수수 생산 추정과 대중 수입량

(단위: 천M/T)

	농촌진흥청		FAO		USDA		대중수입	
	쌀	옥수수	쌀	옥수수	쌀	옥수수	쌀	옥수수
2023년	2,110	1,701	1,548	2,300	1,607	2,300	164.33	6.75
2024년	2,149	1,610	1,620	2,300	1,637	2,300	19.71	0.36
2025년	2,250	1,520	-	-	1,637	2,300	17.64	0.30

주: 1) 농촌진흥청의 쌀 생산량은 정곡 기준(정곡환산율 72%).

2) FAO와 USDA는 각각 조곡(paddy) 생산량과 Rough Production에 정곡환산율(72%)을 곱한 수치임.

3) 농촌진흥청의 2025년 쌀, 옥수수 추정치는 농촌진흥청 보도자료의 수치를 인용하였고, 이외 연도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추출.

4) USDA의 옥수수 생산량은 당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생산량에 해당.

자료: 생산 추정치 - 김현희(2026), 〈표 4-1〉을 편집; 수입량 - 중국해관통계.

10) 『AsiaPress』, 「〈현지조사〉북한의 2025년 新농업정책, 어땠나? (1) 올해 수확 양호, 분배도 증가해 농민들 안도... 함북도 (사진 4장)』, 2025. 12. 29.

반영된 반면,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나 화폐적 성격이 약한 옥수수에는 전가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소비 계층의 구조적 분절(consumption segmentation)을 들 수 있다. 즉, 식량 소비 시장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이원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매력이 낮은 하위 계층은 열등재인 옥수수 소비에 고착화된 반면, 구매력이 있는 상위 계층은 필수재이자 준(準)사치재 성격을 띠는 쌀 소비를 고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상위 계층의 쌀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 폭등을 지지한 반면, 하위 계층의 옥수수 수요는 소득 감소로 인해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는 국가 유통망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이중 구조, 즉 유통 채널의 차이이다. 현재 쌀은 국가가 통제하는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일원화되면서, 경직된 국영 유통망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병목(supply bottleneck) 현상을 빚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옥수수는 여전히 시장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수급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격 급등이 억제되었을 수 있다. 특히 <표 3>이 보여주듯 최근 생산량이 양호했음을 고려하면 국영 유통망의 비효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한 식량 유통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절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려는 ‘식량 전매제의 완성’ 단계로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격 괴리를 해석함에 있어 기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024~25년 상반기 쌀/옥수수 상대가격은 약 2배 수준으로, 안정기(3.1배)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와 국경봉쇄 기간 동안 주민 소득 감소로 고급재인 쌀 수요가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¹¹⁾ 따라서 최근의 상대가격 급등은 억눌렸던 가격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오버슈팅 과정일 수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인 시장 변화인지 단기적인 충격 반응인지는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11) 특히 2021년 3월에는 DailyNK 자료 기준으로 쌀/옥수수 상대가격이 1.62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2. 북한 시장 정제유 가격

가. 정제유 가격 추세

2025년 북한 시장의 정제유 가격은 환율 급등에 편승하여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다. <표 4>와 [그림 6] (a), (b)에서 확인되듯, 휘발유와 경유 모두 연중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휘발유의 경우, 2024년 연평균 1kg당 1만원대 중후반에 머물렀으나, 2025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여 연평균 3만원을 넘어섰으며, 4분기에는 4만원마저 돌파하는 급등 양상을 보였다. 경유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2025년 연평균 가격이 2만원대 중후반을 기록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4분기 한때 4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장환율을 적용한 달러 환산 가격에서 나타나는 유종별 차이와 가격 격차의 축소다. [그림 6] (c), (d)와 같이 과거 물가 안정기(2014~19년)와 비교했을 때, 2024년 하반기 이후 달러로 환산한 휘발유 가격은 과거 안정기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경유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고가에 거래되던 북한 시장의 가격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기 당시 휘발유 가격은 경유 대비 약 1.5배 높았으나, 2022년 하반기 무역 재개 이후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4~25년에는 1.1배 수준으로 좁혀졌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경유 가격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했다.

<표 4> 북한 시장 연평균 정제유 가격(2023~25년)

(단위: 북한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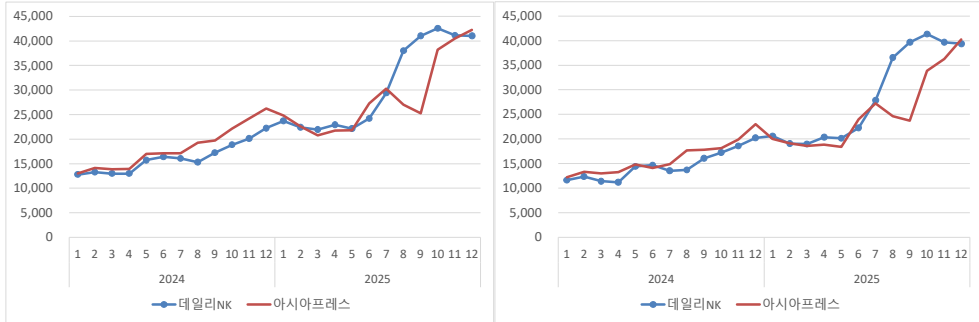
	휘발유		경유	
	DailyNK	AsiaPress	DailyNK	AsiaPress
2023년	13,550 (10.9%)	14,202 (15.1%)	11,903 (24.9%)	12,693 (21.8%)
2024년	16,170 (19.3%)	18,153 (27.8%)	14,584 (22.5%)	16,012 (26.2%)
2025년	30,881 (91.0%)	28,540 (57.2%)	28,820 (97.6%)	25,410 (58.7%)

주: 괄호 안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DailyNK, AsiaPress.

[그림 6] 월별 정제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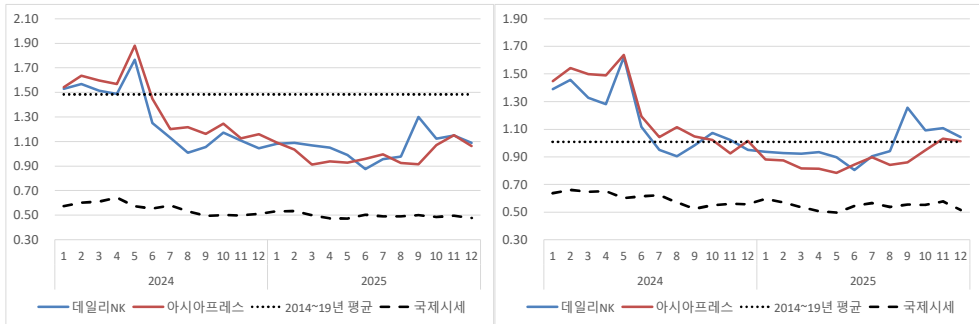
(a) 휘발유(북한원/kg)

(b) 경유(북한원/kg)



(c) 휘발유(달러/kg)

(d) 경유(달러/kg)



주: 국제 시세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석유제품가격 추정값이며, 1배럴당 가격을 1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자료: DailyNK, AsiaPress, 오피넷.

나. 정제유 가격 상승 원인

북한은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무상 원조를 제외한 시장 유통량의 가격은 국제 시세와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김규철, 2018; 남진욱, 2024)에서도 북한 시장 정제유 가격이 국제 시세 및 환율과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 즉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공유함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림 6] (c), (d)에서 보듯 최근 국제 유가는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5년 북한 내 정제유 가격 폭등은 국제 시세보다는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비용 상승분이 가격에 전가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4~25년 월별 북한 시장 휘발유-달러 환율 상관관계 수는 0.96, 경유-달러 환율 상관관계수는 0.95를 기록했다. 이는 정제유 가격과 환율이 사실상 완전한 동조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왜 경유 가격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컸을까? 이는 수요의 성격과 산업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통상 휘발유는 인원 수송(승용차 등)에 사용되는 소비재 성격이 강한 반면, 경유는 생산과 건설(중장비, 화물트럭)에 투입되는 필수 산업재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살림집 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연이어 추진한 바 있다. 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중장비 가동률이 급증한 것이 경유에 대한 초과 수요를 만들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따른 군수 공장 가동 및 군사 훈련 증가가 군용 유류(주로 경유) 소비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군수 및 관급 수요가 경유 공급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면서, 북한 시장에 풀리는 경유의 희소성이 휘발유보다 더욱 심화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2025년 정제유 시장은 환율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건설 및 군사 활동이 경유 수요를 지지하면서 ‘경유의 상대적 고평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IV. 결론 및 2026년 전망

2025년 북한경제는 양호한 산업 성과, 대외 교역의 외형적 회복이라는 거시적 성과와 내부 시장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미시적 고통이 공존하는 극심한 ‘이중 구조의 모순’을 드러냈다. 2025년 북한 시장을 강타한 환율 폭등과 필수재 가격 급등은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체제 결속과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 추진한 ‘무역의 국가 독점’, ‘유통의 국영화’ 등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복합 위기이다.

2025년 시장 동향의 핵심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장 내 외화 공급의 동맥경화’다. 북중 교역과 대러 협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국영 부문에만 귀속되고 민간 영역(밀수, 송금 등)으로의 낙수 효과가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은 만성적인 외화 부족에 시달렸다. 이는 환율 공급곡선을 수직의 비탄력적 형태로 만들었으며, 작은 수요 충격에도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불안정한 시장 구조를 고착화했다.

둘째, ‘물가 전이의 비대칭성과 양극화’다. 환율 급등은 모든 품목의 가격을 균일하게

올린 것이 아니라, 화폐적 자산 성격이 강한 쌀 가격의 폭등을 유발한 반면, 열등재인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억제시켰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구매력이 낮은 취약 계층에게 전가되는 한편, 계층 간 식량 소비 패턴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국가 주도 정책에 의한 자원 배분 왜곡’이다. 쌀의 경우 시장 판매는 억제되고 양곡판매소 주도로 판매되는 반면, 옥수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판매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 주도 유통망과 시장 주도 유통망의 효율성 차이가 가격 상승 격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정제유 시장에서 산업재인 경유 가격이 소비재인 휘발유 가격에 수렴하게 된 현상은, 국가 주도의 건설 및 군사 프로젝트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5년에 형성된 ‘고환율-고물가’ 체제는 2026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북한경제의 새로운 기준점(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즉, 2026년 시장환율이 2010년대의 안정기(8,000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북한 당국이 민간 무역 통제 기초를 완화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외화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의 고공 행진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다. 특히 2026년에도 양곡판매소 중심의 강제적 유통 통제가 지속된다면, 쌀 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주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활동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북한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2026년에 쌀 대신 옥수수나 대체 식량으로 수요가 쏠리는 ‘소비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북한 시장은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화폐 가치는 붕괴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이 체제 안정성에 미칠 파장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통제와 선동을 강화하겠지만, 무너진 화폐 신뢰와 구매력을 회복시킬 근본적인 시장 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응에 그칠 공산이 크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규철,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8-10, 한국개발연구원, 2018.
- 김규철·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25(근간 예정).
- 김현희,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6.
- 남진욱, 「북한 시장의 상품가격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이석·남진욱·최지영,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4-06, 한국개발연구원, 2024.
- 변상정,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75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
- 최장호, 「2025년 북중 무역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6.

<보도자료>

- 『AsiaPress』, 「<북한내부>북한 원이 갑자기 30~40% 대폭락 “달러와 위안의 급등은 외화 고갈 탓” 백미가 지난주 대비 2배 넘는 등 식량과 유가도 폭등」, 2025. 10. 24.
- _____, 「<현지조사>북한의 2025년 新농업정책, 어떠했나? (1) 올해 수확 양호, 분배도 증가해 농민들 안도... 함북도 (사진 4장)」, 2025. 12. 29.
- 『DailyNK』, 「북한 환율 쇼크」 개인 환전 단속 강화하자 외환거래 더 ‘음지화」, 2024. 12. 16.
- _____, 「北, 무역일꾼들의 외화 현금 반출입 금지...통제 고삐 ‘바짝」, 2025. 11. 11.
- _____, 「돈데꼬 ‘소탕전’이 부른 역효과... 달러·위안 거래 더 깊은 음지로」, 2025. 12. 23.
- 『RFA』, 「북한 통신」 외화 단속에 송금도 ‘북한 돈’으로」, 2024. 9. 20.
- _____, 「북, 불법 ‘돈 작업’ 업자 단속 강화」, 2025. 3. 25.
- 『VOA』, 「“북한 ‘중앙집권식 무역제도’ 부활...‘계획경제’ 실패 입증”」, 2022. 2. 10.
- 『연합뉴스』, 「북한 “전자지갑 가입자 수백만명”...전자결제 확산 선전」, 2025. 11. 2.
- 한국은행,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25. 8. 29.

<웹사이트>

AsiaPress 북한 시장 최신 물가정보(<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접속일: 2026. 1. 20).

DailyNK 북한 시장동향(<https://www.dailynk.com/market/>, 접속일: 2026. 1. 20).

FRED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 접속일: 2026. 1. 20).

중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A01>, 접속일: 2026.
1. 20).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접속일: 2026. 1. 20).

오피넷(<https://www.opinet.co.kr/glopdpdSelect.do>, 접속일: 2026. 1. 20).